

감옥에서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 적출을 목격한 증인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무원 칭 종합보도) 캐나다 베테랑 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와 전 캐나다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가 저술한 ‘피의 생체 장기 적출(Bloody Harvest: 血腥的活摘器官)’은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생에게 자행한 소름 끼치는 최악인 생체 장기 적출을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조사 기록했다.

작자는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이 확실히 발생했다면 현장 인원은 범인이거나 피해자이지 방관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살된 후 소각되기 때문에 시체마저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 부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험을 서술할 생존자는 없을 것이며 범인도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를 고백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조사를 거쳐 우리는 충격적인 많은 증언을 수집했다.”

래니의 경험이 바로 확증이다. 래니(Lanny, 가명)는 파룬궁수련생이 아니다. 그는 2005 년 3 월에서 2007 년 초까지 2 년 넘는 수감 기간 17 개의 감방을 바꿨으며 사형수와 한방에 있던 적이 열 차례가 넘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수의 혈액 샘플을 뽑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사형 집행 일이면 많은 의사와 흰 장갑을 낀



사람들이 적십자 표지를 단 흰색 구급차를 타고 온다. 감방장은 그에게 흰색 차량은 장기 적출용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래니가 취조 받을 때 옆방에 한 사형수의 목에 액체가 절반 찬 주사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1 시간 후 주사기 액체는 비워졌다.

감방장은 래니에게 이런 사형수는 생체 장기 적출되어 이식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사형 집행 일은 감옥과 인근 병원에서 배치한다. 병원에서 장기가 필요하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다. 받은 장기이식비용은 병원과 교도관들이 반으로 나눠 가진다. 그 사람 목에 꽂혀 있던 주사는 마취제인데 사형수를 마취함과 동시에 장기를 적출할 때까지 장기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감방장은 말했다.

감금기간이 오래 된 죄수가 래니에게 2002 년에서 2003 년 사이 감방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이 최소한 2~3 건은 발생했다고 알려주었다.

2006 년 11 월, 래니는 장쑤성 우시시(상하이 인근) 제1감옥의 한 감방에서 311 호로 이감됐다. 이 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도관은 그에게 증명서에 서명하라는 구류 중인 천치둥(陳啟東)이 질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도관은 이 증명서를 천의 가족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천치둥은 311 호에 감금됐지만 래니가 이감되기 나흘 전에 사망했다. 천을 본 적이 없는 래니는 서명을 거절했지만 그 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모두 서명했다.

311 호 감방장 왕웨후와 다른 7, 8 명 죄수는 래니에게 천은 파룬궁수련생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감금 기간 가부좌와 연공을 견지해 교도관이 그를 구타하고 고문했다고 했다.

천치둥은 단식으로 학대에 항의했는데 교도관은 호스를 그의 목에 집어넣고 뜨거운 죽을 부었으며 번갈아 가며 강제로 그에게 음식을 주입했다. 죽이 너무 뜨거워 천은 소화기에 화상을 입어 고열이 났다. 천이 감방에서 끌려가기 며칠 전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천에게 혈액 샘플을 뽑았으며 천이 떠나는 날에 흰옷을 입은 사람과 흰 장갑을 낀 사람 4명이 그를 끌고 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바로 이날 취조 받은 죄수가 옆방에 목에 주사기가 꽂혀 있는 천이를 보았다. 311 호 감방에서 창문을 통해 적십자 표지를 단 구급차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감방장은 래니에게 천은 산채로 장기를 적출 당했다고 말했다.◇

산서의 한하이밍이 구타로 사망, 교도관은 악보를 받다

[밍후이왕] 산시성 원수이현의 70 세에 가까운 한하이밍(韓海明) 노인은 진중감옥에서 악당에게 잔혹한 구타를 당했고, 결국 2014 년 4 월 8 일 사망했다. 죄수에게 지시를 내려 한하이밍 노인을 구타한 교도관 린단루이는 그의 악행으로 인해 몇 달 뒤 가족에게 화가 미치게 했는데, 그의 딸이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다음은 한하이밍 노인이 박해당한 경과이다.

2011 년 4 월 7 일, 한하이밍 노인은 치현 치청촌 셋집에서 치현 경찰에게 납치됐고, 2012 년에 원수이현 법원에서로부터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2 년 4 월 10 일 진중감옥으로 납치됐고 박해를 당했다.

2014 년 4 월 4 일 이전, 한하이밍은 2

감시구역의 교도관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 중 교도관 린단루이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감방 팀장 린화이싱에게 ‘한하이밍을 엄밀하게 감시하며, 그가 누구와도 말을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4 월 4 일, 린화이싱은 한하이밍이 다른 사람과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장시간동안 폭행을 가했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는데 주먹으로 한하이밍의 머리 부위를 사납게 쳤으며, 8시부터 9시가 넘을 때까지 폭력을 가했다. 한하이밍은 두부에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산시 큰 병원으로 보냈다.

4월 5일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경찰은 한하이밍의 상황이 조금 안정되자 오후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녁 9시쯤에 이르러 경찰은 훈미 상대인 한하이밍에게 수갑과 족쇄까지 채웠다.

의사는 병세가 위독하다는 통지를 내렸고, 한하이밍의 상태가 매우 심각해 수술에 성공한 후 가장 좋은 결과라 해도 불구가 된다고 말했다. 한하이밍의 아내는 수술하는 것을 반대하며 한하이밍을 집으로 데려다가 요양하도록 하겠다고 요구했다. 교도관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한하이밍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흉악하게 말했다. 가족은 정상적으로 병보석 수속을 신청했으나, 교도관은 역시 여지없이 거부했다.

한하이밍은 당시 의식이 똑똑하지 못했고,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오른 손과 오른발은 마비되었고, 왼손은 늘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그리고 머리 위 왼 측에는 두피가 떨어진 자국이 선명했고, 핏자국이 묻었으며 머리 위의 다른 부위에는 구타당한 뒤의 혈반이 아직 남아 있었다.

4월 7일, 감옥 측은 강제로 수술 받는 것에 가족이 동의하게 했다. 수술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한하이밍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전기 충격으로 몇 번이나 응급처치를 했다. 뒤이어 한하이밍은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나, 머리 부위 이하의 완전

히 감각이 없었고 호흡기에 의해 겨우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4월 8일 0시쯤, 한하이밍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한하이밍이 박해로 사망한 뒤, 진중 감옥은 모든 감시구역에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누가 말했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한하이밍이 박해로 사망한 그날 저녁, 현지에 작은 지진이 발생했다.

몇 달 후, 한하이밍을 사망하게 한 주요책임자인 교도관 린단루이의 딸이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

자비로 거듭 권고하거늘 남 따라 죄를 짓지 말라

안대대로 붙잡아 갔고 아울러 김진금을 직접 세뇌반으로 보냈다.

2013년 4월 2일 아침 6시 30분, 연길시 국가보안대대 악독한 경찰 방영파(方永波), 정철수, 리승철 등은 리정옥의 부친의 집에 들이닥쳐 리정옥을 납치했다. 악독한 경찰은 컴퓨터 두 대, 프린터 두대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리정옥의 아들이 일해서 번 돈과 생활비 5천 위안의 현금과 저축 통장 2개 등 개인 재산도 강탈당했다. 2014년 5월 15일, 리정옥은 4년 억울한 판결을 받아 창춘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를 당했다.

2014년 4월 23일 저녁 8시, 연길시 육순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조영록은 나가서 진상을 알리다 납치됐다. 정철수는 이전에 몇 차례 납치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당겨 나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정철수가 조영록을 모함할 준비를 했음을 설명했다. 과연, 2014년 7월 8일에 연길시 법원에서는 조영록에 대해 불법 재판장을 열었다.

이곳에서 악독한 경찰 정철수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신을 차려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어떠한 악행에 다시 참여하지 말고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과 명성에 들떠서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지 말라! 빨리 중공의 당단대(黨團隊) 조직에서 탈퇴해 사당을 멀리하며 중공을 대신해 말뚝을 뽑은 사람으로 됐던 것으로 인해 자신을 역사의 치욕에 못 박지 말라!

길림성 연길시 경찰 정철수의 악행 (연재2)

2012년 4월 17일, 18일, 정철수는 리기옥(李奇玉), 김순선(金順善), 태호(泰浩), 류춘리(劉春利), 박문철(樸文哲) 등 파룬궁수련생 납치에 참여했다. 시공안국 지하실(고문실)에서 납치된 파룬궁수련생은 전기 고문 등 학대를 당했는데 그 고통의 정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30여 세인 태호가 당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은 특히 잔혹했는데 비명은 연속 끊임없었으며, 사람이 차마 듣지 못할 정도였다. 고문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할 때, 중공 경찰 대다수는 여러 사람이 팀으로 나뉘어 윤번으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잔혹한 박해를 했다. 고문 박해를 책임진 많은 줄개는 지쳐서 기진맥진했다. 두 명의 노년 여성 리기옥과 김순선도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고문을 당했다. 박해로 거의 호흡이 멈추게 돼서야 병원으로 보내 응급처치를 했다. 병원에서 응급 처치함에 많은 돈이 필요하자 먼저 리기옥을 석방했다. 김순선은 곧 당시 장의사 인근에 설립한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세뇌반이 끝난 뒤, 노인은 또 들려 구치소로 납치됐는데, 구치소로 안에서 거듭 생명 위기가 나타났다. 정철수 등은 또 불법 자료를 위조해 태호, 류춘리, 박문철 등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2012년 6월 5일 8시쯤, 정철수, 리성철 등은 파룬궁수련생 루이커룽의 집으로 와서 작년에 내주었던 보석 수속에 대해 좀 수속이 필요하다는 이유

로 루이커룽을 국가보안대대로 속여 데려갔다. 오후에 그를 연길시 구치소로 납치했고, 위조 자료로 루이커룽에게 3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 기간에 검찰원에서는 서류를 반송한 적이 있으나 국가보안 경찰은 법률을 무시한 채 계속 자료를 위조해 계속 루이커룽을 박해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루이커룽은 몸이 불편했던 이유로 중도에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업무 담당자는 거듭 자료를 왜곡해 죄명을 뒤집어 씌웠다. 몇 달 후 두 번째 재판에서 루이커룽에게 불법적인 3년 판결을 내렸다. 그런 다음 길림 여자감옥으로 보내 계속 박해를 가했다.

2012년 7월 1일, 안영희는 일터에서 정철수, 리성철 및 ‘610’ 악인들에 의해 연길시 세뇌반으로 납치당했다. 그곳에서 안영희는 인성을 상실한 자들에 의해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세뇌반에 갇힌 후 안영희는 잔인한 학대와 인신 모욕을 당했다.

2012년 10월 17일 오전 7시 전, 파룬궁수련생 왕위제(王玉傑)는 집 인근에서 정철수, 리성철 등에게 용정시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10월 26일 아침 7시쯤, 연길시에 거주한 김진금과 남편이 야채를 사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철수 등 8명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가로막혔다. 경찰들은 두말 없이 김진금을 경찰차에 밀어 올렸고, 컴퓨터와 대법 서적을 강탈했다. 두 노인을 국가보